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1년도 표어 ⊕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신6:4-9, 마28:18-20)

⊕ 행동지침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2.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어린이 주일 메시지

##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고 위대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자녀들은 이미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부모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인정하고 끝까지 신뢰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와의 기업이요”(시. 127:3)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들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이 땅에 내 보내시기 위해 부모 된 우리를 선택하셨을 뿐입니다. 모든 자녀들은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을 지니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그 유일무이한 성장과정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만들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를 면밀히 살펴서 이미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모든 성장과 열매의 잠재력들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사과와 사과대로, 배는 배대로, 자두는 자두대로, 복숭아는 복숭아대로 그 특유의 맛과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다 다르지만 각자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다 사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볼 문제입니다.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학생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서울 강남과 분당 지역의 신경정신과 병·의원엔 “죽고 싶다”고 찾아오는 초등학생들이 전체 환자의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며, 또 이런 아이들의 70% 이상이 스트레스로 인한 소아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들을 우리가 잘못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아이들을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답게, 위대하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다 이뤄지도록 더욱 기도에 힘쓰며 말씀으로 양육함으로 작은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 박노철



# 오늘은 어린이 주일

## 교육1국 다양한 행사로 축하해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다양한 행사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교회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자장면을 점심으로 준비하여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특히, 교육1국은 각 부서별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여 축하한다. 유년부는 “친구초대파티”를 701호에서 오전 10시 10분에 갖는다. 또한 초등부는 총

동원주간으로 “새친구 초청잔치”를 오전 10시 30분 한티 공원에서 갖는다.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품에 우리 친구들을 많이 전도하여 칭찬받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부모가 되도록 기도한다.

### 주일1부, 수요일2부예배 피아니스트 교체

주일1부예배(가브리엘 찬양대) 피아노 반주자 조현정 선생의 개인사정으로 금년 8월까지 박승기 선생이 대행한다.

수요일2부예배(시온 찬양대) 피아노 반주자 변지원 선생이 개인사정으로 사임함에 따라 서유진 선생(한예중 기악과4년)이 임명되었다.

#### 부서소개

## 멋진 유년부!

#### 김안성 목사(유년부 지도)



“정답은, 2번입니다!” “와~~!!!”

아이들은 정답을 적은 자기 반 화이트 보드를 흔들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아이들의 환호가 가득한 유년부의 복습 퀴즈 시간입니다. 유년부에서는 한 주 전 가족예배 설교말씀을 복습하며, 매주 3문제씩 퀴즈를 풉니다. 아이들은 반 친구들과 힘을 합쳐 정답을 맞히고 매우 즐거워합니다.

복습퀴즈를 잘 풀기 위해서라도, 유년부 어린이들은 설교말씀을 잘 듣습니다. 유년부 어린이들은 올해 유년부에서 자체 제작한 『유년부 어린이 핸드북』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나의 설교말씀 기록장”이 들어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매주일 설교말씀 중 한 단어, 한 말씀 구절이라도 적고 있습니다. 떠드는 것



같이 보여도, 열심히 듣고 “설교말씀 기록장”을 잘 적어오는 어린이들로 인해, 매주 핸드북을 검사하고 도장을 찍어주시는 서기부 선생님들께서 감동을 받으십니다.

『유년부 어린이 핸드북』안에는 또한, “반별 필사성경 기록장”이 들어있어서 반마다 성경의 한 책을 정하여 열심히 성경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북 안에는 “나의 말씀과 기도 일지”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거의 매일, 단 몇 분이라도 기도하고 몇 절이라도 말씀을 읽은 후, 기도시간과 읽은 성경절수를 기록해 옵니다. 서툰 글씨로 열심히 적어온 아이들의 말씀과 기도일지는 감동 그 자체입니다.

어린이들 중에는 인천, 김포, 안양, 용인, 수원에서 이른 아침에 떠나 대중교통으로 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아빠께서, 교회 간다고 꾸지람을 하시거나 나들이와 늦잠을 권하시는 가운데서도, 어렵게 엄마와 함께 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매주일 아침, 아이들이 교회에 도착하기까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다양한 사연들을 품고 왔을까를 생각하면, 아이들 한명 한명이 더욱더 대견하고 반갑습니다.

이 귀한 아이들을 위해, 차영도 부장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께서 기도와 성실함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담임선생님들께서는 전화심방 일지를 매주 기록하시면서 전화나 문자로 아이들을 살피시고, 손수 준비하신 작은 선물과 간식들을 직접 또는 우편으로 아이들에게 주시며 격려하십니다.

유년부 찬양대와 앤젤스 찬양팀 선생님들께서는 “준비된 찬양”을 드리는 기쁨을 아이들이 알도록, 재능과 많은 시간을 들여 잘 지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새싹반 선생님들의 정성으로, 4월까지 온 16명의 새친구 중 13명의 아이들이 잘 정착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새 친구가 오면 기존 어린이들 가운데 버디(buddy, 친한 친구)를 자원 받아 정착을 돕고 있는데, 버디 어린이들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년부는 어린이들도 선생님들도 참 멋집니다! 유년부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는 이종운 원로목사님과 박노철 목사님, 매주일 유년부를 돌아보며 격려해주시는 김광신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장로님들, 항상 애쓰시는 자모회 어머니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어린이 주일

## 예제, 예수님의 지혜를 닮은 아이!

#### 권재현 집사(6교구)

사랑의 하나님!

저희 가족을 늘 사랑해 주시고, 더불어 선물로 주신 예제가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예지를 돌보며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수고가 아뻏혔는지, 더불어 오래 참고, 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양육의 과정이 빨리 지나기를 원하는 힘겨운 시기가 아니라, 순간순간 새로운 깨달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보다 성장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제’ 예수님의 지혜를 닮으라는 의미에서 기도

하며 결정한 이름입니다. 먼저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예지를 길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 부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 두 사람이 많이 부족하고 어리석음을 아시는 주님, 저희가 민감하여 주님 주시는 은혜에 순종하는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의 첫 자녀로 주신 예지는 성장하면서 더욱 지혜로운 딸이 되길 소망합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잘 관리하여, 균형 있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좋은 목사님, 선생님, 배우자와 그 가족, 친구, 동료, 선후배, 멘토를 만나 배움과 사람관계가 넉넉한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예지를 만난 20개



월 동안 많은 기도와 수고의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주님 주시는 축복이 모든 분들께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

# 하나님이 주신 나의 꿈



장이늘 (유년부)

얼마전 엄마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책을 알려주셨습니다. 그중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말씀하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어린 녀 자녀가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날이 오는 꿈 말입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게 꿈은 백인과 흑인이 버스에도 같이 타면서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라, 버스에 타다』라는 그림책에서 버스에 올라탄 흑인 여자아이가 백인이 앉는 자리에 가서 용감하게 앉는 것을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흑인들의 꿈은 차별 받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꿈을 꾸는 아이가 나옵니다, 저는 꿈꾸는 아이 요셉을 좋아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간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두 가지 꿈을 주십니다. 첫째는 열한 뱀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고 둘째는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요셉의 별명은 그래서 꿈쟁이입니다. ‘꿈꾸는 아이 요셉’ - ‘꿈꾸는 아이 하늘이’

하나님이 주신 꿈은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애굽

으로 팔려가서 종이 되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을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는 아이는 힘들어도 꿈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은 피아니스트, 의사, 도서관 사서입니다. 피아노를 잘 쳐서 내가 연주하는 찬송가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찬송가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되어 아픈 사람들을 치료 해 주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아파도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약이 없어 조금 아파도 될 것을 많이 아픈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아픈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사서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도서관에는 다른 곳에 없는 하나님에 대한 책이 많이 갖다 놓고 싶습니다. 만화로 된 하나님 책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책을 사람들에게 빌려 주어 책을 읽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꿈이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백소현 (유년부)

나의 꿈은 변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화가가 되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변호사가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과 같은 변호사가 되어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고, 공평하고 죄가 없는 세상이 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훌륭한 변호사가 되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성경말씀을 잘 익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

요합니다. 또한 어린 솔로몬처럼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재판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의 다짐은 열심히 공부해서 하버드 법대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하버드대에서 법을 많이 배워 우리나라가 외국과 재판을 할 때에 제가 배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특히 영어와 같은 외국어를 잘 익혀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토론할 때 저의 의견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한성 (초등부)

나의 꿈은 의사다. 사실 우리 엄마는 병원에 다니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그 꿈을 가지게 된 이유도 엄마의 영향이 크다. 엄마는 늘 내게 정직하라고 말씀하신다. 나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은 환자에게도 정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주신 봉사의 사명감과 같다. 예수님께서서는 눈 먼 자, 38년된 병자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 주셨고 심지어는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죽은 사람을 살리신 적도 있다.

나도 아픈 사람의 편에 서서 고통을 치료해 주는 의사가 되고자 한다.



백민수 (초등부)

혹시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으십니까?

그 꿈을 이루신 분들도 있고, 아직 이루어 내지 못했지만 계속 꿈을 품고 날아오르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혹시 이 꿈들이 허무한 세상의 꿈들이 아닐지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아직 어린이기 때문에 수많은 꿈들이 존재합니다. 건축가, 사업가, 디자이너, 대통령, 외교관, UN사무총장 등 수많은 꿈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많은 꿈들중에서 제가 원하는 것은 외교관과 UN사무총장입니다. 물론 이 꿈들은 매우 크

고 감당하기 힘들지만 개인적으로 꼭 이루고 싶습니다.

또한 이 꿈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교관이 되어 선교사들이 안전하게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그곳 장관이나 관료들에게 예수님을 알게하여 그 나라 국민들에게 예수님이라는 희망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UN사무총장은 세계의 대통령입니다. 세계의 대통령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다른 나라의 대통령들은 그걸 본받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꿈을 이루고 나서 약속을 실천하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짓된 행동을 하는 부끄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꿈을 이룬다면 이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고 따를 것입

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주님이 제게 주신 꿈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제 해줄 꿈!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리고 천국문의 열쇠를 쥐게 할 수 있는 꿈!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게 주신 진정하고 아름다운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주는 헛된 유혹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진정한 꿈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그 꿈을 향해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이번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 꿈을 생각해 보고 계획해야 합니다. 어린이 뿐만 아니라 모두가 주님께서 주신 꿈을 생각하고 계획하여 봅시다.



결혼예비학교

#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에게



이은옥 권사(결혼예비학교)

꽃망울이 터지고 새잎이 돌아나는 봄은 늘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을 만날 때

마다 그들의 인생에 봄이 시작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들 앞에는 무성한 잎들로 자라고, 가지가 뻗어 나가는 여름이 올 것이고,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을 가을이 기다리고, 그리고 정리와 휴식을 준비해야 하는 겨울까지 긴 인생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름답고 열정이 가득하고 사랑이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짝을 만나 한 가정을 이루는 일은 큰 축복이요 기쁨이다. 그 축복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새로운 인생을 열어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가정을 만족스럽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향하여 충실하고 성실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 개인의 삶에서 이제는 그(그녀)와 인생의 목표를 같이하고 서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함께 긴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때로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도 올 것이고, 큰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결혼생활이라는 긴 길을 가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넘어지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 실망할 수도 있고, 낙심이 우리의 앞을 가로 막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때 서로가 동반자

라는 끈끈한 정서적 유대감으로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꿇고 함께 기도하며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뜨거운 열정은 오래 가지 않으므로 점차 따뜻한 관심과 보살핌을 담은 책임으로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초기의 낭만적인 사랑도 오랫동안 지속되어 질 수 있는 우정과 친밀감으로 발전되어 나갈 때 성숙한 결혼생활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은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상대방에게 전하여야, 오해와 불신감이 쌓이지 않게 됩니다.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때 신뢰감과 안정감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회나 가족이 제시한 전통적인 역할기준에 지나치게 얽매어, 갈등을 일으키기 보다, 부부가 함께 자신들에게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역할을 창조하여 융통성 있게 대처하며,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 서로의 성장과 행복을 지원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함께 간다는 사려깊은 생각과 행동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결혼생활로 이끌 것입니다.

끝으로, 일생동안 그(그녀)가 자기편이 되어서 함께 인생의 동반자로 살아갈 것 이라는 확신과, 하나님과 많은 증인 앞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일생동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살 것을 약속한 것임을 기억하며 결혼식장에 임하시기를...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만남을 통해 가정을 이루시는 모든 예비부부들 앞에 축복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 합니다.



##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어린이주일일을 맞아 유년, 초등부연합 찬양으로 드린다. '사랑이란 나누어 주는것 (P.Jacobs & Hanneke Jacobs)'의 2곡을 신동준(2학년)등 45명의 합창으로 김지현 선생의 지휘와 박재원선생의 피아노반주, 양혜선 선생의 전자피아노 반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지휘자 김지현 선생은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를 졸업하였고 현재 초등부 찬양대 지휘자로 봉사하고 있으며, 박재원 선생은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를 졸업하고 현재 유년부 찬양대 지휘자로 봉사하고 있다.

## 화요정오음악회

5.3(화) 정오, 본당(관람은 3층)

· 차주연 / 오르간



- 종신대 교회음악과(B.M) 졸업
- 한양대 음악대학원 석사(M.M) 졸업
- Arizona State University 대학원 석사(M.M) 졸업
- Arizona State University 대학원 박사(D.M.A) 졸업
- 현 : 서울 장신대학교 출강, 서울교회 오르가니스트

### 동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5월1일(주일) 파리선한장로교회에서 설교한다. 5월2일(월) 프랑스킴치 동문모임을 갖는다. 5월7일(토) 사랑의쌀 운동 조찬기도회 설교를 한다.
- 사임 : 2009년부터 부목사로 서울교회를 섬기던 문정훈 목사는 4월24일부로 사임하였다.
- 선임 : 11교구 이영조집사 한국 파인세라믹스협회 회장
- 승진 : 11교구 윤석원집사 두산중공업 부사장
- 이사 : 9교구 김태기 장로, 윤문자 권사 가정 강원도 원주시 명륜1동 치약맨션 309

■ 주간식당봉사 : 리브가전도회(5.1) 제1스데반회(5.8)

■ 금주의 식사제공 : 교회제공(자정면)  
(어린이 주일을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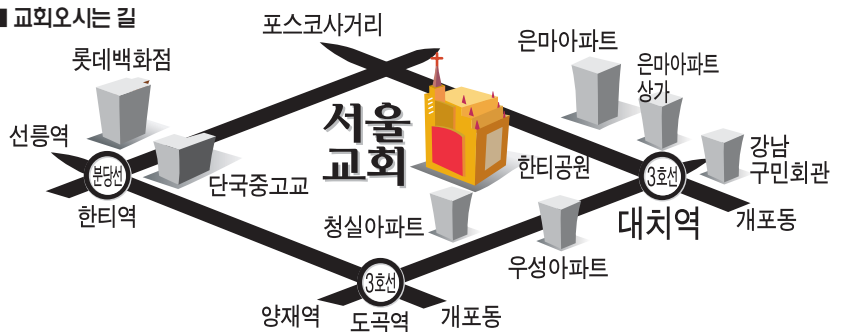
지난주 4월 24일 부활절을 맞아 어린이 찬양예배부(지도: 박진아 목사, 부장: 윤중덕 집사)는 달걀을 전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다.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 회	오후 8시20분	
새 벽 기도 회	오전 5시30분	

### ■ 교회오시는 길



##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우리교회 어린이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여 천국 일꾼으로 쓰임 받도록
2.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모든 가정이 주님께 순종함으로 작은 천국을 이루도록
3. 방글라데시의 바로이 선교사님과 다카 장로교회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 되도록